

해남군, 청렴도 1등급 달성 향해 뚝다

청렴약속 캠페인 실시하며 의지 다져 지난해 전남도내 유일 3년 연속 2등급

해남군이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군은 최근 군청 앞에서 청렴약속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청렴 에너지를 담은 고무마방과 청렴약속 리플릿을 나눠주며 청렴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날 캠페인에는 해남군 공무원노조가 함께 명절 선물 안주고 안 받기, 민원인에게 금품·향음 요구 안하기, 예산 위법·부당 집행 안하기 등을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해남군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남도내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고, 전국 5개 지자체에만 주어지는 내부청렴도 1등급을 획득하는 등 청렴 문화 정착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종합청렴도 1등급 도약을

목표로 청렴비전 선포식을 비롯해 청렴콘서트, 청렴소통 비대면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공직자 한명 한명이 전 공직자를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져달라"며 "앞으로도 청렴을 최우선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며 군민들의 자부심을 향상시키고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진도군,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적극 추진

공모 대응 주민역량강화 교육

진도군이 최근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의 공모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사업 수요 조사를 통해 신청된 22개 어촌마을의 어촌계장, 이장을 대상으로 목포대학교 강령년 교수를 초빙해 ▲공모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사업 이해 ▲주민참여도 제고 ▲어촌계 개방 방안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역량강화교육은 주민주도형 예비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전문가 자문을 통한 주민역량교육과 지역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고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예비사업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진도군 진도항만개발과 관계자는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이번 역량강화 교육은 진도군 주도의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마을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로 예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며 "실질적으로 어촌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어촌뉴딜 300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 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이다.

진도=조성용 기자

휴게음식·일반음식점 제과점 옥외영업 허용

강진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강진군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식품점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옥외영업 적용범위는 식품점객업소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소로 옥내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옥외영업장에서는 단순가열을 포함한 조리행위는 불가하며, 조리된 음식물 제공만 가능하고 테이블, 의자 등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다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신고 전에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는지 혹은 안전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직접 확인하고 강진군 민원봉사과 위생 인허가 부서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준비서류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건축물 현황도(배치도, 평면도 등), 등기사항 증명서(건물 또는 토지) 사본, 사용 계약서, 집합건물 중 옥외 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류, 점용 허가증 등이다.

사용하려는 영업장 면적은 영업자가 직접 실측해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하고 기재해야 한다.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후 옥내영업장 및 옥외영업장 합산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청 민원봉사과(☎061-430-3425)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군 "20만원 충전 임신부 교통카드 신청하세요"

임산부 이동 편의 제공,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

완도군은 출산 장려 시책으로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맘편한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임신부 교통카드는 1인당 1회, 20만 원을 충전하여 지원한다.

대상은 '21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상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임신부 등록돼 있어야 하며, 교통카드는 대중교통(택시 및 버스·지하철)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다.

임신부 교통카드 신청은 신분증과 임신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발급된다.

도서 지역의 경우 읍면 보건지소에 신청하면 1~2일이 지난 후 수령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출산 장려 정책 추진 등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을 조성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모자보건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550-6753/ 6757)로 문의하면 된다.

기동취재본부

강진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고려하라! 강진' 공모사업 선정 2023년까지 120억 투입



강진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강진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고려하라! 강진) 기본계획 수립을

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이승욱 군수를 비롯해 김호제 강진관광협의회장, 김

혜숙 전남문화관광해설사강진지회장 등 전남도와 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마스크착용, 발열체크, 손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강진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고려하라! 강진'은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국비 60억 원 등 총 120억 원을 투입해 고려문화를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이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광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군, 축산분뇨 처리 방식 바꾼다

'가축분뇨 친환경 공동발효센터' 건립 추진

장흥군은 축산분뇨의 처리 방식을 개별 퇴비사 처리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다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립되는 가축분뇨 친환경 공동발효센터는 지난해 6월 공모를 거쳐 지난달 18일 최종 확정됐다. 세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가축분뇨 친환경 공동발효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친환경 공동발효센터는 총 사업비 20억 원이 소요되며 부지 7,500㎡(2,268평)에 시설물 2,315㎡(708평)와 각종 기계 장비 구입으로 1일 우분 80톤 처리 능력을 갖추게 된다.

가축분뇨 친환경 공동발효센터가 건립되면 장흥군 한우사육농가 1,626농가 중에서 62%에 해당하는 1,016호의 축산농가가 수혜를 입게 된다.

가축분뇨 친환경 공동발효센터는 개별 축산농가에서 우분을 수거하여 발효센터에서 7회의 교반과 부숙을 거쳐 양질의 퇴비로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우분 수거와 완속된 퇴비는 전역 무상으로 지급하나 살포에 따른 장비 및 유틸비용은 축산농가 환원 차원에서 실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가축분뇨 친환경 공동발효센터가 완공되면 개별 축산농가 가축분뇨의 수거 처리로 생활환경 보전은 물론 수질 오염을 크게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축산농가의 부속도 검사 비용과 분뇨 처리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된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농지에 환원함으로써 지역 친환경 농업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흥=김도영 기자

